

# 광주 등록 차 70만대 돌파...10대 중 1대 외제차

### 2021년 70만783대로 인구 2.06명당 1대...외제차 7만4847대 10년만에 465% 늘어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70만대를 돌파했다. 광주지역 자동차 10대 중 1대 이상은 외제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업체가 전용 전기를 갖달아 출시하면서 전기차 등록 대수도 60% 이상 급증했다.

24일 광주시가 발표한 '2021년 12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는 총 70만783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9만1740대)보다 1.31% 증가한 것으로,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2.06명당 1대로 파악됐다. 10년 전인 2011년(55만821대)에 비해서는 27.23%(14만9962대)가 늘었다.

차종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21만930대가 등록돼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 20만394대, 서구 14만 8704대, 남구 9만5593대, 동구 4만5162대 순이었다.

외제차는 총 7만4847대가 등록돼 전년(6만 9062대)보다 8.4%가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7만대를 돌파했다. 광주에 등록된 전체 차량의 10.26%가 외제차라는 얘기다.

여기에 승용차로만 놓고 보면 외제차의 비중은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광주 전체 승용차는 58만6296대로, 외제 승용차는 7만1884대(12.25%)였다.

광주의 외제차 등록 대수는 2011년 1만3234대에서 5년 만인 2016년에는 4만5740대로 크게 늘었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는 6만1613대가 더 증가

하면서 무려 5배(465.5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제차의 국별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브랜드가 포함된 독일이 3만8013대로 절반 이상(50.799%)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1만3033대, 일본 7306대 순이었다.

특히 친환경차의 인기 속에 하이브리드와 전기, 수소차의 등록 대수가 늘어난 반면, 경유차는 감소하는 등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료 종류별로 보면 전기차가 5194대로 전년(3210대)보다 61.80%(1984대)나 증가했고, 하이브리드도 2만3172대로 전년(1만7459대) 대비

32.72%(5713대) 늘었다. 수소차 역시 701대에서 881대로 25.68%(180대) 늘었다.

반면 경유차는 27만2915대에서 지난해 26만 6902대로 -2.20%(-6013대) 감소했다. 휘발유(30만4318대→31만349대)와 LPG(8만8271대→8만9043대)는 각각 1.98%(6031대), 0.87%(772대) 증가하는 등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보복심리 등이 맞물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례와 함께 외제차의 소비도 늘었다"며 "반도체 공급 문제 등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지지 않았다면 증가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자동차업체가 전기차 신규 모델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차 등록은 가파르게 증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쉐보레 대형 SUV 트래버스 2022년형 모델 사전 계약

한국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래버스의 2022년형 모델 사전계약을 오는 26일 시작한다.

24일 한국GM에 따르면 신형 트래버스는 내·외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부분 변경 모델이다.

특히 최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 모델이 이번 신형 트래버스 라인업에 포함돼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트래버스는 쉐보레의 대형 SUV 개발 노후가 집약된 정통 아메리칸 슈퍼 SUV로 2019년 국내에 출시됐으며, 동급 최대 차체와 주행 퍼포먼스, 넓은 실내공간, 강력한 견인능력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제품 가격 등 정보는 사전계약 시작일인 26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SUV 최고 연비' 기아 신형 니로 본격 판매

### 오늘 공식 출시...연간 2만5000대 판매 목표

기아가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올 뉴 기아 니로'를 25일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24일 기아에 따르면 신형 니로는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총 1만7600대가 사전계약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사전계약 고객은 연령대 별로 30대가 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0.9%, 40대 20.7%, 20대 19.0%, 60대 이상 12.7% 순이었다. 2030 세대 비중이 46%로, 기존 니로 고객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트림별 선택 비율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45.1%로 가장 많았고, 프레스티지(40.6%), 트렌디(14.3%) 순이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안전 하차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 차급을 뛰어

넘는 사양이 대거 기본으로 적용됐다.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팝'이 51.3%로 가장 많이 선택받았고, 내장 컬러로는 '차콜'을 선택한 사전계약 고객이 69.8%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기아는 국내에서 신형 니로를 연간 2만 5000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한국에 이어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신형 니로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신형 니로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32kW 모터를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을 발휘한다.

특히 연비는 국내 SUV 가운데 최고 복합연비인 20.8km/ℓ를 구현했다.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 ▲트렌디 2660만원 ▲프레스티지 2895만원 ▲시그니처 3306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완성차업체, 설 맞이 차 무상점검 실시

### 현대차·한국GM 등 26~28일

설 명절을 맞아 국내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무상 점검을 추진한다.

24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 오후 5시30분까지 현대자동차는 21개 지역 하이테크센터와 1331개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에서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기아도 같은 기간 18개 지역 서비스센터와 783개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점검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점검 ▲전조등, 제동등, 미등 등 각종 등화장치 점검 ▲위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고객은 각 브랜드 모바일 앱(현대차 'myHyundai'·제네시스 'MY GENESIS'·기아 '기아 VIK')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국GM도 같은 기간 9개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르노삼성차는 7개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필요한 경우 퓨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한다.

이밖에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로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 중이다.

긴급 출동반 전화번호는 현대차 080-600-6000, 제네시스 080-700-6000, 기아 080-200-2000, 한국GM 080-3000-5000, 르노삼성차 080-300-3000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쌍용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2주만에 3000대 돌파

쌍용차는 지난 4일 출시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출시 2주 만에 누적 계약 3000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화한 '익스페디션' 트림이 전체 계약 물량의 26%를 차지했다.

익스페디션 모델은 정통 오프로더의 감성을 담아 차별화된 품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내외관 스타일링 업그레이드와 고급 편의·안전사양 등을 기본 적용한 스페셜 모델이다.

'프린트 넘버링', '후드 패션 가니쉬', 전용 엠블럼 등이 기본 적용됐고, '중앙차선유지보조', '차선유지보조', '후측방 충돌보조' 등 16가지의 첨단 주행 안전 보조시스템도 장착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통 오프로드 감성을 더해 새롭게 추가한 익스페디션 트림이 인기를 끌며 스페셜 모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출시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